소비자 10명 중 8명 "고물가에도 추석 선물 할 것"

대한상의 조사…56% "전년도와 비슷한 구매금액 지출"

구매처 1위 대형마트…선호 선물 모든 연령대 과일 꼽아

국민 10명 중 8명은 고물가와 경기침체에도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추석 선물 구매처로 대형마트를 첫 손에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3일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선물 구매의향' 결과, 응답자 중 56.2%가 '전년도와 비슷한 구매금액을 지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9.1%였다.

'줄일 계획'이라는 응답은 14.7%에 불과했다.

설·추석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20만에서 30만원으로 높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추석 선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29.2%)이라고 보는 응답이 '부정적'(16.7%)보다 많았다.

고물가, 경기침체 등에도 추석 명절만큼은 기분 좋은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대한상의 분석이다.

모든 연령대는 가장 선호하는 추석 선물로 과일(43.8%)을 꼽았다.

두 번째로 선호하는 품목은 세대별로 엇갈렸다.

20대(38.7%)와 30대(43.0%)는 정육을 두 번째로 선호했고, 40대(36.8%), 50대(36.0%), 60대(33.3%)는 건강기능식품을 택했다.

특히 30대(6위), 40·50대(7위), 60대(9위)에서는 낮게 나타난 주류가 20대에서는 20.7%로 세 번째 선호 품목에 꼽힌 것이 눈길을 끌었다.

추석 선물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가성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알뜰 소비 성향이 강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물 선택 기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연령대는 '가성비(68.2%)'를 1위로 꼽았다.

가격 대비 품질이나 성능을 중시하는 실속형 소비패턴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대는 51.3%가 '가성비'를 중요한 구매기준으로 선택한 반면, 50대는 72.8%, 60대 이상은 78.0%로 집계됐다.

가성비에 이은 두 번째 선물 선택 기준은 세대별로 달랐다. 20대와 30대는 고급스러움(44.7%·40.5%)을, 40·50대는 받을 사람의 취향(49.6%·51.2%)을, 60대 이상은 건강 요소(57.3%)를 꼽았다.

특히 20·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트렌디함, 유명 브랜드, 포장 등 선물 외적인 요소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선물 구매 채널과 관련해 전체의 58.1%는 대형마트라고 답했으며, 온라인쇼핑(40.8%), 백화점(30.5%), 모바일 선물하기(12.5%)가 뒤를 이었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은 3.5%로 가장 낮았다.

대한상의는 "명절 선물세트는 품질 민감도가 높고 환불이나 교환에 시기적 제약이 있는 만큼 직접 상품을 확인하면서 비교하기 쉬운 대형마트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선물을 주는 대상은 부모가 76%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나 이웃 등 가까운 지인 47.6%, 직장동료나 상사 18.4%, 자녀나 스승 7.7%로 조사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는 3일 담양군 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이병노 담양군수, 박종탁 농협전남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농협 쌀 수출 확대, 글로벌 도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농협전남본부, 전남쌀 1000t 수출 달성 선포식

글로벌 시장 진출 전방위 지원

농협전남본부가 '전남쌀 1000 t 수출'을 위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농협전남본부는 3일 담양군 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이병노 담양군수, 박종탁 농협전남본부장,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농협 쌀 수출 확대, 글로벌 도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매년 쌀 소비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쌀 수요처를 새로 발굴, 전남 쌀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올해 '전남쌀 1000 t 수출' 목표는 전남 농협의 연간 쌀 수출량의 10배가 넘는 규모로, 전남농협은 중국과 중동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물류 판촉비 지원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농협전남본부를 비롯한 행사 참석자들은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전남 쌀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쌀 수출 목표 달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전남도도 전남쌀 수출을 늘리기 위해 마케팅과 판촉 지원사업에 나선다. 전남산 쌀을 수출하는 생산자(RPC·농협·조공법인 등)와 전남 해외 상설 판매장의 현지 운영사인 수입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최근 3년 간 농협의 전남쌀 수출량은 76 t (2021년·)→149 t (2022년)→117 t (2023년) 등 342 t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전남지역 벼 재배 농가들은 국내 쌀 시장의 소비감소와 재고증가로 인한 쌀값 하락 등으로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쌀 한 가마(80㎏) 가격은 지난달 25일 기준 17만 6628원으로, 지난 2022년 9월 25일(15만 5016원)이후 가장 낮은 가격까지 떨어진 상태다.

최근 5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인 평년가격(19만 1022원)과 비교하면 무려 7.5%(1만 4394원)나 떨어졌다. 20㎏짜리로는 4만 4157원 수준이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점 등을 들어 정부가 지난해 쌀 한 가마니당 2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올해 수확기 쌀값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전남농협은 이같은 점을 감안, 쌀 수출 확대가 쌀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선포식 축사를 통해 "현재 정부대책으로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대단히 역부족"이라며 "10월 수확기 전에 2023년산 재고 17만 t에 대한 시장 격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올해 신곡에 대해서도 선제적 격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전남본부 박종탁 본부장은 "농도 전남의 지역 브랜드를 활용해 전남 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 강화와 수출조직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세관 추석 명절 특별대책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가동

광주본부세관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18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통관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내 미 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추석 송편 선물 어때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추석을 앞둔 3일 백화점 지하 1층 보향떡집 매장에서 다양한 색상의 송편들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매장에서는 모시 송편, 단호박 송편, 흰 송편으로 구성된 '3색 깨송편' 상품과 왕송편, 일반 송편 상품 등도 구입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지난달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초반 '안정세'

체감물가지수는 여전히 높아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반대를 유지하면서도 도시가스 요금 등이 오르는 등 시민들 체감 물가는 높은 실정이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4.95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고, 전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민들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17.40으로 전년 동월보다 2.1% 올랐다.

지난 7월만해도 광주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3.0%를 기록했지만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지난달에는 0.9%포인트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보험서비스료(15.1%), 도시가스(6.5%) 등이 올랐고 상추(-19.1%), 토마토(-18.0%), 닭고기(-14.6%), 고등어(-11.4%) 등은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2.8% 하락했다. 신선과실류가 2.3% 올랐지만, 신선채소류(-9.6%), 신선어개류(-2.7%)가 하락한 결과다.

지출목적별로는 기타 상품·서비스(4.1%), 교육(3.8%), 음식·숙박(2.8%) 등 12개 부문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5.34로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고, 전월보다는 0.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전남 생활물가지수는 2.3% 상승했다. 전월 상승폭(3.3%) 대비 1.0%포인트 내렸다.

품목별로는 보험서비스료(15.1%), 사과(23.7%), 택시료(19.7%) 등이 올랐고, 토마토(-25.3%), 양파(-16.0%), 파(-13.7%) 등이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에 견줘 3.4% 상승했다. 신선어개류(-2.1%)와 신선채소류(-2.3%)가 하락했지만 신선과실류가 14.0% 상승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택배사들 추석 연휴 기간 15~18일 배송중단

이르면 내일 개인택배 접수 마감

추석을 앞두고 이르면 내일 개인 간 보내는 택배가 마감한다. 추석 연휴 전까지 이뤄져야할 택배가 있는 소비자들이라면 택배사별 마감 일정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 간 보내는 택배의 경우 CJ대한통운은 오는 5일에 접수를 마감하고 추석 연휴 이후인 26일부터 다시 신청받는다. 한진은 6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1일에 각각 마감한다.

편의점 택배 접수도 CJ대한통운은 오는 12일 정오까지,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2일까지만 각각 가능하다.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두 택배사 모두 11일에 접수가 마감된다.

배송의 경우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오는 14일까지 진행하고, 연휴가 끝난 19일부터 재개한다.

홈쇼핑이나 온라인몰은 추석 전 배송가능 일자와 반품 접수 일자가 다를 수 있어 주문 전 판매처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CJ대한통운은 한 달간 전국 허브·서브터미널에 구축한 자동화 설비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간선 차량 기사, 상하차 아르바이트, 분류 도우미 등 하루 최대 1400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오는 20일까지 특별수송 기간으로 운영한다. /연합뉴스

'전남 스토리' 콘텐츠 제작 지원 참여기업 모집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일까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의 우수한 스토리 자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남도 스토리뱅크 구축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전남의 설화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IP 발굴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전남도 소재 또는 전남도로 이전을 희망하는 콘텐츠 기업 및 예비창업자이다. 콘텐츠 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며 역외기업과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후 협약 체결 전 전남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전남 설화 및 전라남도 역사이야기를 소재로 활용한 고유의 창작물인 ▲웹툰(1개 과제) ▲웹소설(2개 과제) ▲애니메이션(1개 과제) 등 총 4개 과제 1억4000만원 내외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인용 진흥원장은 "설화, 역사 소재 기반의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지원사업이 역량있는 콘텐츠 기업과 지역 스토리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모멘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진흥원은 스토리 IP 발굴에서부터 콘텐츠 제작, 유통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출판 등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 가능한 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해 '전라남도 스토리 공모전(~10월 4일)'을 추진 중에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20여 중소기업 대상 '현장지원단' 운영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난달 29일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전남지역 2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 3회 원스톱 중소기업 현장지원단'을 운영했다.

이날 현장지원단에는 전남도를 비롯,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전남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이 참여해 기업들과 일대일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기업들은 전남도 지원사업, 정부 지원사업, 정책자금, R&D 지원사업, 수출 및 FTA, 일자리 정책, 퇴직연금기금, 법인세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참여했던 기업들 사이에서는 기관별 담당자들로부터 직접 기업지원 사업을 안내받는 등 원스톱으로 현장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인 만큼 이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원스톱 중소기업 현장지원단은 순천(3월), 목포(5월), 여수(8월)에 이어 함평(10월)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남악 오룡지구 토지공급 설명회

남악신도시 내 단독주택 등을 건설, 분양하기를 희망하는 주택건설사들을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무안군 전남개발공사 10층 대강당에서 '2024년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하반기 공급설명회'를 연다.

개발공사는 설명회에서 블록형단독주택용지(8만 5734.5㎡규모 3필지)와 준주거용지(1필지·3356.5㎡) 공급방식 및 공급조건을 안내한다.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323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이 가능하다.

설명회에서는 손봉국 감정평가사의 오룡지구를 비롯, 신도시에 대한 '신도시 분석법' 강의도 열린다.

희망자는 개발공사 분양보상처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영산강 조망이 가능하고 노을광장 등 인근 수변공원과 연접해 타운하우스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악신도시 오룡지구는 영산호에 접한 31만㎡ 규모의 수변공원과 함께 차량간섭 없이 유기적으로 17㎞가 연결되는 등 보행자 중심 도시를 표방하며 조성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64.63 (-16.37)
↓	코스닥	760.37 (-8.84)
↓	금리 (국고채 3년)	2.981 (-0.008)
↑	환율 (USD)	1339.70 (+1.30)